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2009 농업전망 발표

###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 육계 사육수수 감소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도 농업전망 중 양계분야 전망을 보면 산란계의 경우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계란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육계의 경우 사육수수 감소에 따른 닭고기 생산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2009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량은 2008년 산란종계 입식수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관계로 1분기는 30.3%, 2분기는 12.3%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산란계 사육수수 역시 2008년보다 1.9% 증가한 5,983만수, 계란생산량도 2.0% 증가한 54만3천톤으로 전망하였고,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1.1kg으로 2008년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란산지 가격은 2008년보다 하락한 10개당 1,023원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채란업계는 2010년까지 계란과잉에 처할 수 있어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의 경우 육용종계 입식수수의 감소로 2009년 1~6월 도계수수 잠재력이 2008년 동기기간보다 낮게 나타나, 2009년 상반기 도계수수는 2008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육계 사육수수 역시 2008년 종계병아리 입식수수 감소로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한 6,288~6,300만 수로 내다보았다. 사육수수 감소로 인해 2009년도 육계가격은 2008년 보다 0.3~0.9% 상승한 1,572~1,597원으로 전망하였으며, 국내 육계가격 상승으로 닭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7만 5천톤을 수입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닭고기(삼계탕) 수출은 규모면에서 아직 작지만 국내 질병발생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의 삼계탕 수출길이 열릴 경우 닭고기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9년까지 산란계, 육계산업에 대한 장기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향후 산란계 사육수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산지가격 역시 증가가 예상되고 소비량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육계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육계사육수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2019년에는 수입닭고기 비율이 2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유통불합리로 왜곡되는 생산자 가격 난가 현실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

금년 들어서면서 언론지상에서는 ‘계란값 최고치’, ‘계란값 폭등’, ‘계란가격이 왜 이래?’ 라는 제목 등으로 기사화되면서 채란농가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하였다. 정작 농가들의 실상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계협회에서 발표한 가격이 159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는 시 파동으로 살처분한 물량이 많아 생산이 줄었고, 사료가격이 2007년 kg당 350원에서 최근 500원까지 상승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소비자 가격 역시 30개 들이 1판에 6,000원을 기록하는가 하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개당 230원을 넘게 받는 곳도 있다는 보도였다. 비싼 난가로 인해 농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다.

현실로 들어가면 상황은 다르다. 실제 농가에서 수취하는 계란가격은 40원정도 DC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20원 이내의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06년 말부터 생산원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계란생산비는 개당 120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가에서 받고 있는 계란가격은 결코 농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상황이 아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DC가 50원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계란가격 DC로 인한 가격의 혼란은 유통구조의 불합리에 기인할 수 있다. 1일 유통권으로 묶여있는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별(7개 권역)로 가격이 발표되고, 한 지역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타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심지어는 지역간의 주도권 싸움(?)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난가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채란인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과거 20여년전에는 유통비조로 2~3원의 가격이 생산자 가격에 합산되어 계산되었다. 1~2원의 DC를 두고도 상인들과 농가들간의 신경전이 거세게 일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난가의 등락이 거듭되고, 유통의 불합리가 나타나면서 DC폭은 점점 벌어져 40원 이상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유통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들은 금년부터 7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난가를 발표하고 있다. 통합된 지역은 수도권(서울·충남·영주), 호남권(광주·전주), 영남권(부산·대구)이며, 장기적으로 불태 전국 난가 단일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난가 흐름을 반영치 않은 난가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

기도 하지만 난가 단일화는 DC폭이 커지는 것을 막고 시장의 흐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난가 통합발표를 계기로 채란산업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DC를 없애고 가격을 현실화하여 소비자들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한층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

## 한국토종닭협회 사단법인 인가 업계 분열조장 우려성 증폭

본회 등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 정부로부터 한국토종닭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향후 육계 및 토종닭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2003년 임의단체로 결성된 이후 농림부로부터 7년여만에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동 협회는 토종닭 인증제, 차별화된 육질개선, 토종닭 전문 도계장 건립 등 토종닭 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양계협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단법인화의 부당함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전체 양계산업에서 5%에도 못 미치는 유색닭 중 토종닭의 비율이 더 낮은 상황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단합을 강조해온 정부가 토종닭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처사는 양계산업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토종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토종닭 농가와 육계농가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종닭 농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입장이다. 사실 한협품종외에 외국 수입품종인 싸소, 하코 등까지 토종닭으로 인정할 경우 유색닭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성이 크다.

양계협회는 그동안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협회 정식 기구로 토종닭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분과내로 들어와 활동할 것을 토종닭협회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토종닭협회는 사단법인 인가가 민법 32조에 의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왔다.

따라서 양계협회에서는 토종닭 사단법인화에 따른 양계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하든지 무대책으로 승인하였다면 당장 취소해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모든 힘을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임을 강하게 전달하면서 향후 육계 및 토종닭 업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계업계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양계**